

주 제 사

박 영 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이시광

「한국사회과학연구 15년사 1987-2002」 발간의 계기를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나라의 1987년부터 2002년까지의 사회과학연구의 15년 역사는 시민의 힘으로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우려하는 사회의 힘의 힘을 향상시키며 민족의 숙원인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사회과학의 발전과 이론과 실천이 담긴 기록이다.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연구의 가장 빛나는 시기의 연구의 성과와 과정을 학계의 차원에서 잊을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 책은 민족통일 이룩 사회과학연구의 그 특성을 비롯해 한국의 근현대 사회과학 단계를 추적한 연구의 성과와 과정을 30여분야로 구분해서 분류 체계화한 방대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사회과학계와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과학연구 공동체인 '시민의 힘'이 2003년과 2004년과 사회과학연구의 발전을 떠받쳐 이 15년사 발간으로 우리나라의 사회과학연구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사회과학연구에 가담하고 있는 학계와 연구자로서 진부함을 느낀다.

세계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과학계는 새로운 일에 앞장서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는 모든 사회과학계의 연구 활동에 반영되고 있을 것이다. 반면 민족통일 이룩을 위한 최전선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계와 연구자들이 연구의 분기기에 현존하는 사회과학연구를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발간된 한국사회과학연구 15년사는 사회과학연구계들에게는 자기 성찰을 통한 개혁의 해로로 도출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며 영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반민주체제들에게는 시민의 힘을 재인식하게 하는 촉발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그리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사회과학연구자들에게 그들의 장래를 위해 지혜롭게 돌아보며 내일을 향해서 새로운 길 15년사 발간을 축하하는 데에 애정충동도 한 몫을 담당했기를 바란다. 1987-2002년 사이의 사회과학연구의 성과와 과정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연구계들과 함께 연구하고 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에 힘쓰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시민의 힘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를 창출해 내야 하는 변혁기에 처해 있다. 그 변혁의 여정에서 15년사의 발간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이 글의 노고에 보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위대한 뜻을 공유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이 책을 펴내기를 추진하는 바이다.

추천사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 1987-2002」 발간의 쾌거를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나라의 1987년부터 2002년까지의 시민사회운동의 15년 역사는 시민의 힘으로 군사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지향한 시민사회의 발자취와 비전과 염원이 담긴 기록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의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한 권의 책에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민주항쟁 이후 사회운동 변화와 그 특성을 비롯해 전국의 2만여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30개 분야로 구분해서 분석평가한 방대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시민단체가 함께 만들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신문인 '시민의신문'이 2003년과 2004년의 시민사회 연감을 펴낸 데 이은 15년사의 발간은 또하나의 시민사회운동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시민사회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세계가 그러하듯이 우리사회에서도 시민사회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극복에 대한 기대는 오로지 시민사회의 역할에 달려있다고들 한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최근 붙어닥치고 있는 반민주적이며 수구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민사회운동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발간된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자기성찰을 통한 개혁과 새로운 도정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며 역사를 되돌리려는 반민주세력들에게는 시민의 힘을 재인식하게 하는 촉발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이 나라의 수많은 시민사회운동체들에게 오늘의 당면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내며 내일로 향하는 좌표가 될 이 15년사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 여성운동도 한 몫을 담당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1987-2002년 사이의 여성의 사회운동은 성평등 세상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체들과 함께 민주화운동과 생명운동 등,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창출해내야 하는 변혁기에 처해있다. 그 변혁의 이정표가 될 15년사의 발간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이 역사책을 모두가 읽어서 뜻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책을 필독서로 추천하는 바이다.

추천사

04-11-2 6.7 ru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 1987-2002」 발간의 쾌거를 환영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 1987년부터 2002년까지의 우리나라 시민사회운동의 15년 역사는 시민의 힘으로 군사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지향한 시민사회의 발자취와 비전과 염원이 담긴 기록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사상 가장 빛나는 이 시기의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한 권의 책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은 87년 민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의 변화와 그 특성을 비롯해 전국의 2만여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30개 분야로 구분해서 분석·평가한 방대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시민단체가 함께 만들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신문인 '시민의신문'이 2003년과 2004년 시민사회 연감을 펴낸 데에 이어 15년사를 발간한 것은 시민사회운동의 또 하나의 커다란 업적이라고 생각하며 시민사회운동에 가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세계가 그러하듯이 우리사회에서도 시민사회가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기대할 것은 오로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들 한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최근 불어 닥치고 있는 반민주적이며 수구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시민사회운동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발간된 「한국시민사회운동 15년사」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자기성찰을 통한 개혁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며 역사를 되돌리려는 반민주세력들에게는 시민의 힘을 재인식하게 하는 촉발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이 나라의 수많은 시민사회운동체들에게 오늘의 당면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내며 내일로 향하는 좌표가 될 이 15년사의 내실을 다지는 데에는 여성운동도 한 몫을 담당했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1987-2002년 사이의 여성의 사회운동은 성평등 세상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운동체들과 함께 민주화운동과 생명운동 등,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에 파트너로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사회를 창출해내야 하는 변혁기에 처해있다. 그 변혁의 이정표가 될 15년사의 발간을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이 역사책을 모두가 읽어서 뜻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책을 필독서로 추천하는 바이다.

이력사항

성명	박영숙(朴英淑)
생년월일	1932년 5월 28일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 필리핀 Far Eastern 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 수업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대학원 국제환경정책 수업 케임브리지 클레어홀 평생 회원
경력	한국 YWCA 연합회 총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아시아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제13대 국회의원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대통령 통일고문회의 고문
현직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한국여성재단 이사장